https://doi.org/10.5392/JKCA.2019.19.07.211

TV 미니시리즈 갈등구조 : 2000~2005년을 중심으로

The Structure of Conflict in TV Mini-series: Focused on 2000~2005

노동렬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Dong-Ryul Roh(rohdah@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05년간 방영된 미니시리즈 중에 시청률 상위 5위 이내에 진입한 작품들의 갈등구조를 분석하였다. 성공한 작품은 사랑과 성공 소재를 활용하여 빈부 갈등과 신분 상승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직장과 가정을 권력 관계로 묘사하며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인간적 화해와 같은 긍정적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면서도 죽음 또는 해외 이주나 체포와 같은 공간적 분리 방식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안타고니스트를 처벌하고 있다. 프로타고니스트를 중심으로 핵심 갈등을 긴장감 높게 전개하다가 안타고니스트가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문제가 기계적으로 간편하게 해결되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 방식이 이 기간에도 자주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성공한 드라마의 갈등구조 변화 추이 분석은 물론 시청자에게 선호도가 높은 갈등 유형의 변화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후속 연구의 토대가 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 중심어 : | 미니시리즈 | 갈등 | 사랑과 신분 상승 욕구 | 권력 관계 | 데우스 엑스 마키나 |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conflict plots of the top 5 most watched TV series during the 2000-2005 period. It was observed that those popular series typically took love and success as main subject matters to actually aim for such a sensitive social issue as the widening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s well as audience's desire for higher status. They even dared to describe our lives at home and the job as power relationships to heighten the intensity of the conflict. On the other hand, the resolution took a wide variety of both positive and negative endings - ranging from marriages and conciliations to death and arrests - as a way to have the antagonists punished. The deus-ex-machina was often used. A chronological view of the change in the conflict plots of successful dramas should deserve further academic interests.

■ keyword : | Mini-series | Conflict | Love and Success | Power Relationship | Deus-ex-machina |

I. 문제제기

방송은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이다[1][2]. 특히 드라마는 일상생활에서 있을 법한 사건을 소재로 스토리텔링하며 갈등을 부각하는 장르이다. 사회의 변화 양상이나 트렌드의 변화에 민감한 것이 드라마의 특징이다[3][4]. 사회에서 변화하고 있는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변화해야 할 부분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재들을

* 이 논문은 2017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접수일자 : 2019년 05월 28일
수정일자 : 2019년 06월 21일
심사완료일 : 2019년 07월 09일
교신저자 : 노동렬, e-mail : rohdah@hanmail.net

사건과 갈등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제작자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드라마는 언론의 영향을 수행한다고 평가받기도 한다[5]. 1998년 외환위기는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외환위기로 초래된 경제 환경 변화는 방송제작산업에도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6].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드라마 소재 선택과 스토리텔링 방식에 그대로 반영되게 된다. 따라서 사회의 변화 양상을 드라마가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의미 있다. 동시에 드라마가 사회를 반영하는 것처럼 시청자들은 드라마를 통해 사회의 변화를 공감하게 된다. 시청자들의 폭넓은 공감을 형성하는 드라마는 시청률 성과로 보답 받게 된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부터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한 우리 사회를 드라마가 어떻게 반영하고 있으며, 드라마에 나타난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떠한지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드라마의 사회적 기능 연구에 대한 토대는 물론 드라마 한류 연구에 대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청률 조사가 시작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드라마에 나타난 주요 갈등을 연구함으로써 드라마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이슈들이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 시기는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취업, 결혼, 가족 구성 측면에서 가치관이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이 기간에 침체되었던 경제 환경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연기자와 작가의 원고출연료가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외주제작의무편성비율의 지속적인 증가로 드라마 제작 편수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겨울연가〉에 이어 2004년 〈대장금〉이 일본에서 한류를 주도하면서 드라마제작산업이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는 의미가 있다[6]. 향후 이러한 시기별 특성에 따른 통시적인 연구를 지속함으로써 드라마생산자가 사회에 관심을 갖는 관점이나 드라마가 사회를 반영하는 방식은 물론 시청자들의 드라마 선호 이유에 관한 연구가 더 활성화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TV 드라마 내용 연구는 성 역할에서부터 산업적 효과에 이르는 부분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여성 이미지 연구는 드라마 내용 분석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어 있다[7][8]. 이러한 연구는 드라마 등장인물의 직업 분석을 통해서 사회 고정관념의 재생산 과정이나 드라마 트렌드 변화 연구를 검증하는 과정으로 이어지면서 드라마가 사회를 반영하는 방식에 대해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드라마가 직업을 묘사하거나 활용하는 방법의 변화는 등장인물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사건 묘사에서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드라마가 다루는 갈등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9].

유사한 사례로 최근 이루어진 드라마에서 질병을 다루는 방식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드라마 내용 속에서 질병이 결말 부분의 극적 장치를 만들어내는 데우스엑스마키나(deus ex machina)로 활용되던 경향에서 드라마의 사실성을 증가시키는 핍진성(verisimilitude)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한다[10]. 드라마 작가가 동원하는 요소들은 모두 궁극적으로 사건과 갈등을 만들거나 심화시키는 효율적인 도구로 사용된다는 측면에서 질병의 활용 연구는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드라마에 등장하는 남녀주인공의 직업 변화나 질병을 활용하는 방식의 변화는 드라마 주류 장르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궁극적으로 드라마가 선택하는 갈등 관계나 그것을 풀어가는 방식에서의 변화를 의미한다 할 수 있다. 드라마는 인간의 삶에 대한 스토리텔링이다. 이런 스토리텔링은 삶에 대한 어떤 특정한 관점을 나타내고 또한 어떤 특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다[11]. 인간의 삶이 변화하는 가치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 드라마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드라마에서 선택하고 풀어나가는 갈등도 시대의 변화나 인간의 삶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변화한다. 갈등은 두 사람 이상의 관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나, 의견, 신념, 가치관 등이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심리적 불균형이나 인지 부조화 현상을 의미한다[12][13]. 다른 표현으로, 자신이 욕망하고자 하는 것을 쫓는 것과 자신이 감당해야 할 대가 사이의 고민이다[14]. 유혹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유혹은 항상 부정적인 것도 아니다.

유혹을 받을 때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 에너지에서 행동이 발생한다. 이때 갈등이 시작되고 인간의 삶은 탄력을 받는 것이다[14]. 이러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내적 조화나 관계의 균형을 추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된다.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타인을 설득하거나 장애물로 등장한 대상을 제거하고자 행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노력의 과정과 그 결과가 바로 주제로 부각되는 가치가 되는 것이다.

드라마 작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소재를 선택해야 시청자들의 공감과 몰입을 유도해 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시청자들의 감정이입을 위해서는 호기심과 궁금증, 미스터리 그리고 서스펜스와 같은 작법의 세련미가 있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시청자들이 주목(attention)을 끌어낼 수 있는 갈등 관계의 선택이 선행되어야 한다. 드라마에서 다루는 갈등의 해결 방식에 따라 시청자들은 교훈을 얻거나, 태도 변화를 고민하거나, 반성이나 대리만족의 가치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주제의 가치를 더욱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플롯(plot)이다[15][16]. 플롯에는 필연성과 놀라움이라는 모순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결론에서 주제를 부각하는 가치를 공감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본질적으로, 드라마는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을 때는 놀라움의 연속이어야 하지만 결말부터 거꾸로 돌이켜봤을 때, 그 모두는 합리적이었다고 이해가 돼야만 한다. 필연성과 놀라움은 양립이 가능하다. 대체로 놀라움은 '어떻게'라는 방법을 다루고 필연성은 '무엇'이라는 사건을 다루기 때문이다[16]. 특히 놀라움은 독창성이 있어야 시청 효과를 높여 주제 전달력을 상승시킬 수 있다.

주제의식은 각각의 캐릭터(character)들이 갈등을 빚을 때 잘 드러난다[17]. 갈등을 극대화하는 것은 생산자의 기본적인 역량이며, 남녀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도록 캐릭터를 묘사하는 것은 작가의 근본 역량이다[11]. 캐릭터는 갈등과 사건을 만들어내는 근본 토대로 작용한다. 주인공은 관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목표의식과 위험요소, 그리고 주인공이 목표를 향해 매진할 때 등장하는 장애요소를 갖고 있게 된다. 이 중에서 장애요소는 외부 경쟁자, 내부 반대자, 비극적 또는 희극적 결점으로 세분하여 구성된다[17]. 주인공이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의 대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외부 경쟁자가 무엇인지 또는 얼마나 강력한 지 여부는 드라마 핵심 구성요인이 되는 것이고, 주인공의 성격이나 주인공이 속한 조직 내부의 반대자나 장애물이 있어야만 갈등은 더욱 복잡해지고 반전의 묘미를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주인공과 적대자가 어느 정도를 서로를 반영하도록 하는 이유는 갈등을 선명하게 표현함으로써 주제 가치를 부각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주인공과 적대자는 드라마의 주제의 양면을 대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가가 선택한 스토리의 갈등을 극대화하는 용이한 방법이다. 드라마는 일반적인 일상생활의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극적 전제 속에서 벌어지도록 장치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극적인 전제 속에서 캐릭터가 살아 숨 쉬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립하는 인물이 필요하고, 인물들의 대립을 강조할 수 있는 사건이 필요하다[18]. 이것이 드라마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시청자들은 인물들이 갈등을 겪어가는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게 되며, 갈등이 해결되는 방식이나 결과를 통해 감동이나 주제 가치를 인식하게 된다.

작가가 선택하는 드라마의 주제의식이나 갈등 유형은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다. 사회의 발전과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드라마로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고, 특정 시대에 유행하는 드라마의 장르가 존재하기도 한다. 장르는 진화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드라마의 특징을 일반화할 수 있는 장점이기도 하다[11]. 현재와 같이 드라마의 장르가 융합되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생산자가 어떤 갈등을 선택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는지 여부는 학문적인 가치가 높다. 특히 드라마가 산업적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어떤 갈등이 주로 소비되고 있으며, 시청자들에게 공감대가 높은 갈등은 무엇인지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제작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Ⅲ. 연구문제 및 방법론

본 연구는 TV 미니시리즈에 나타난 갈등 구조를 연구하는 데 목표가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광고 수입 감소, 제작비 감소, 드라마 제작 편수의 감소 등의 원인으

로 방송산업에도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특히 내수시장 위축과 해외시장 개방이라는 변화는 제작자들에게 국내 시청자와 해외 시청자 모두를 겨냥한 드라마 제작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도록 하였다. 분명한 것은 경제 위기 극복과 내수 광고시장의 위축으로 인한 경쟁의 심화는 드라마 제작산업의 활성화라는 성과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다. 특히 2004년과 2005년의 드라마제작사의 코스닥 상장 본격화와 2006년 드라마제작사협회 출범은 드라마제작시장의 산업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6]. 따라서 시청률 조사가 시작된 2000년부터 일본한류로 드라마산업이 활성화되던 2005년까지의 기간을 중심으로 미니시리즈 드라마에서 다룬 갈등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다는 측면은 물론 드라마제작산업의 활성화 방향성을 분석하는 토대로 작용할 것이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드라마 갈등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1. 연도별 갈등 설정 요인의 변화는 어떠한가?

드라마의 갈등은 주인공이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장애물로 설정된 적대자나 상황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성공한 드라마가 선택한 갈등을 외형적, 내면적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은 드라마가 우리 사회의 어떠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어떠한 이슈들을 부각하려 의도하는 지 여부를 파악하는 의미를 갖는다.

연구 문제2. 연도별 갈등 주제별 요인의 변화는 어떠한가?

주인공 행동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이익과 손해가 배분되는지가 드라마의 갈등 요소이다. 따라서 주인공을 중심으로 경쟁하게 되는 주제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그 시대의 이슈와 가치관을 이해하는 데 의미 있는 일이다.

연구 문제3. 연도별 갈등 해결 방법의 변화는 어떠한가?

드라마는 갈등 해결 과정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면서, 그 결과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주제의식에 공감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갈등 선택의 문제는 물론 갈등 해결 방식에 대한 분석은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지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인기 미니시리즈가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드라마가 그리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판단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방송된 지상파방송사 미니시리즈 중에서 매년 시청률 상위 5위 이내의 드라마 총 30 작품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김희애(1992)가 제시한 드라마 갈등 분석 방법을 준용하였다[19]. 갈등의 설정 요인으로는 주인공의 직업, 신분, 계층 등과 같은 외형적 요인과 등장인물들의 심리적 갈등상태와 같은 내면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내면적 요인은 성격, 가치관, 감정을 핵심 카테고리로 분류하였으며,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은 갈등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갈등의 주제별 분석은 상황적 갈등과 갈등 주체 간 수평/수직적 관계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상황적 갈등은 주인공의 목표를 사랑, 재물, 폭력 등의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적대자와 연인, 부부, 친구 등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로, 직장 내 상하 관계나 가족 내 위계 관계, 사제 관계 등을 수직적 관계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갈등의 해결 방식은 용서, 화해, 결혼과 같이 갈등 관계가 해소되면서 새로운 관계로 정립되는 것을 긍정적 방법으로, 자살이나 죽음, 이별 등과 같이 갈등으로 인해 관계가 단절되는 형식을 부정적 방법으로 설정하여 분류하였다.

드라마 분석을 위해서 닐슨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시청률을 기준으로 연도별 상위 5위 이내의 드라마 30편을 선정하여 연구자가 직접 코딩하였다.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 각 드라마의 기획안을 일차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기획안에 나타난 내용과 함께 드라마의 공식 홈페이지, 위키백과, 나무위키, 네이버 블로그 및 뉴스 기사 등을 참고로 하여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갈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갈등 관계는 남녀주인공과 그들의 대항자를 중심으로 3~5명의 등장인물 간의 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1998년 IMF 외환위기는 우리 사회 전반에는 물론 드라마제작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제작비의 일괄적인 삭감과 원고출연료 상한제, 전속제 폐지로 인해 방송사에 소속되어 있던 연기자들이 연예기획사로 이동하면서 연예산업의 발전은 물론 요소시장이 부상되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벤처산업 육성 정책으로 인해 드라마와 영화산업에 투자가 집중되면서 코스닥에 상장하는 외주제작사와 연예기획사가 생겨났고, 2003년 〈겨울연가〉, 2004년 〈대장금〉으로 인해 일본 한류 시장이 형성되면서 드라마제작산업은 새로운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었다[6]. 외환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출세, 성공, 신분 상승에 대한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시기의 사회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시청률 상위 5위 이내의 드라마는 다음과 같다.

표 1. 2000년~2005년 미니시리즈 시청률 상위 5위 이내 드라마

구분	제목
2000년	진실(MBC), 가을동화(KBS), 나쁜 친구들(MBC), 이브의 모든 것(MBC), 줄리엣의 남자(SBS)
2001년	여자 만세(SBS), 황금시대(MBC), 맛있는 청혼(MBC), 수호천사(SBS), 피아노(SBS)
2002년	겨울연가(KBS), 로망스(MBC), 그 햇살이 나에게(MBC), 명랑소녀 성공기(SBS), 라이벌(SBS)
2003년	보디가드(KBS), 옥탑방 고양이(MBC), 올인(SBS), 천국의 계단(SBS), 완전한 사랑(SBS)
2004년	발리에서 생긴 일(SBS), 불새(MBC), 파리의 연인(SBS), 풀하우스(KBS),두 번째 프러포즈(KBS)
2005년	쾌걸 춘향(KBS), 봄날(SBS), 내 이름은 김삼순(MBC), 장밋빛 인생(KBS), 프라하의 연인(SBS)

1. 빈부 갈등과 신분 상승 욕구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시청률 상위를 기록했던 지상파방송사 미니시리즈가 다룬 갈등의 설정 요인 중에서 먼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설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미니시리즈는 직업과 빈부를 중심으로 한 신분의 문제를 외형적 갈등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직업은 아나운서, 대부업, 요리사, 조폭, 프로골퍼, 프로겜블러, 보디가드, 연예인, 연예기획사, 형사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직업 세계에서 발생하는 라이벌이나 적대자 관계를 이용하여 갈등을 설정하고 있었다.

표 2. 외형적 갈등 설정 요인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합계
직업 및 신분	2 (20%)	2 (16.7%)	3 (25%)	2 (33.3%)	1 (10%)	2 (28.6%)	12 (21.1%)
빈부 및 신분	5 (50%)	8 (66.7%)	8 (66.7%)	4 (66.7%)	9 (90%)	4 (57.1%)	38 (66.7%)
기타 및 지역	3 (30%)	2 (16.7%)	1 (8.3%)	0	0	1 (14.3%)	7 (12.3%)
합계	10	12	12	6	10	7	57

재물이나 빈부 이슈를 매개로 설정된 갈등 요인은 주로 재벌 2세와 이복형제, 상속자, 미혼모, 사생아, 이혼녀 등의 가족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가족 간 재산의 분배와 정상적 가족 관계에서 벗어난 등장인물을 설정하여 갈등을 생성함으로써 강도 높은 심리적 긴장감을 조장하고 있다. 출신 지역 차이나 동문수학을 동기로 해서 발생하는 갈등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내면적 갈등 설정 요인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합계
성격	11 (12.2%)	12 (13.3%)	10 (19.2%)	11 (23.4%)	5 (16.1%)	6 (20%)	55 (16.2%)
가치관	47 (52.2%)	46 (51.1%)	23 (44.2%)	20 (42.6%)	9 (29.0%)	3 (10%)	148 (43.5%)
감정	32 (35.6%)	32 (35.6%)	19 (36.5%)	16 (34.0%)	17 (54.8%)	21 (70%)	137 (40.3%)
합계	90	90	52	47	31	30	340

직업과 빈부의 문제로 형성된 외형적 갈등 관계는 성격이나 가치관, 감정적 측면에서 내면적 갈등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가치관의 갈등이 점차로 줄어드는 반면 감정을 매개로 한 갈등이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3]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한 것이 [표 4]의 내용이다. 성격 차이나 고집, 우직함처럼 성격으로 분류되는 요소들이 남녀주인공을 둘러싼 갈등의 요소들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기대감이나 성취욕, 출세욕, 허영심, 자존심과 같은 요소들은 남녀주인공의 가치관 갈등을 표현하는 도구로 활용되면서 신분 상승 욕구나 성공에 대한 성취감을 갈등의 주요한 요소로 부각시키고 있었다.

표 4. 내면적 갈등 설정 요인의 세부 내용(빈도수)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성격	성격차이	2	3	2	5	3	4
	고집	3	4	5	4	2	2
	우직성	6	5	2	2	0	0
가치관	기대감/성취욕	24	19	10	9	0	1
	의무감/도덕성	9	11	2	3	2	1
	출세욕	11	9	7	3	3	0
	자존심/자의식	3	7	4	5	4	1
감정	질투심	6	13	12	11	6	8
	열등의식/좌절	9	2	4	2	4	3
	복수심/분노	3	8	0	0	1	2
	그리움/연민	11	7	0	1	4	5
	죄책감	3	2	3	2	2	3

이는 성공한 미니시리즈가 직업이나 신분의 열등감을 극복하고 신분 상승 욕구를 성취하기 위한 전형적인 경쟁 구도를 플롯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감정적 측면은 열등의식, 질투심, 편견과 멸시, 괴리감 등의 요소들이 중심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또한 경쟁에서의 승리를 통한 신분 상승 욕구의 정서적 표현임을 알 수 있다.

미니시리즈가 갈등을 통해 주제를 부각하기 위하여 설정한 외형적 요인은 직업이나 가족 관계에서 적대자와의 갈등 관계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스토리텔링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내면적 갈등 설정 요인에서 나타나는 성취욕, 출세욕, 도덕성, 질투심, 열등의식 등의 가치관과 정서는 외형적 갈등 설정 요인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감정들로서 빈부 갈등을 동기로 한 신분 상승 욕구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사랑을 중심으로 한 가족 내 권력 관계 갈등

빈부 갈등과 신분 상승 욕구를 갈등 요소로 활용해 시청자들을 자극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미니시리즈의 주제를 부각하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다. 따라서 연구 문제2에서는 미니시리즈의 남녀주인공들이 처한 위기 상황에서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주로 어떤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미니시리즈가 선택한 상황적 갈등 주제별 요인은 [표 4]의 내용과 같다.

표 5. 상황적 갈등 주제별 요인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합계
사랑	28 (52.8%)	28 (47.5%)	16 (57.1%)	18 (56.3%)	16 (61.5%)	15 (65.2%)	121 (54.8%)
재물	12 (22.6%)	12 (20.3%)	3 (10.7%)	3 (9.4%)	5 (19.2%)	1 (4.3%)	36 (16.3%)
폭력	6 (11.3%)	9 (15.3%)	2 (7.1%)	4 (12.5%)	2 (7.7%)	2 (8.7%)	25 (11.3%)
죽음	4 (7.5%)	5 (8.5%)	2 (7.1%)	3 (9.4%)	1 (3.8%)	1 (4.3%)	16 (7.2%)
기타	3 (5.7%)	5 (8.5%)	5 (17.9%)	4 (12.5%)	2 (7.7%)	4 (17.4%)	23 (10.4%)
합계	53	59	28	32	26	23	221

이 시기 미니시리즈는 대부분 청춘 드라마 형식을 취하고 있었으므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적 갈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남녀주인공의 애정 문제(54.8%)가 중심 플롯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물을 매개로 한 갈등(16.3%)은 주인공이나 적대자 모두의 행동에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폭력과 죽음은 대단원의 반전을 만들어내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 측면에서 갈등 요소로 작용하였다. 기타 항목(10.4%)은 병, 기억상실, 구속, 불치병, 출생의 비밀, 교통사고 등의 갈등이 포함되는데, 이는 죽음에까지는 이르지 않으면서 대단원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요소들을 구성되고 있다. 사랑과 재물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중심 플롯과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는 결과라고 판단한다.

표 6. 갈등의 주제별 요인의 수평적 갈등 관계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합계
연인	7 (35%)	4 (23.5%)	5 (26.3%)	5 (23.8%)	4 (28.6%)	2 (22.2%)	27 (27%)
부부	0 (0.0%)	2 (11.8%)	3 (15.8%)	2 (9.5%)	2 (14.3%)	2 (22.2%)	11 (11%)
타인 동성	3 (15%)	2 (11.8%)	5 (26.3%)	5 (23.8%)	4 (28.6%)	1 (11.1%)	20 (20%)
타인 이성	3 (15%)	2 (11.8%)	5 (26.3%)	5 (23.8%)	3 (21.4%)	4 (44.4%)	22 (22%)
친구 (동성)	2 (10%)	2 (11.8%)	1 (5.3%)	2 (9.5%)	1 (7.1%)	0 (0.0%)	8 (8%)
동료 (동성)	1 (5%)	1 (5.9%)	0 (0.0%)	0 (0.0%)	0 (0.0%)	0 (0.0%)	2 (2%)
집안	4 (20%)	4 (23.5%)	0 (0.0%)	2 (9.5%)	0 (0.0%)	0 (0.0%)	10 (10%)
합계	20	17	19	21	14	9	100

[표 6]은 갈등의 주제별 요인들이 어떤 관계를 통해 전개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며, 다양한 관계 중에서도 수평적으로 묘사된 관계를 정리한 내용이다. 이 시기 미니시리즈는 연인과 가족 관계 내 수평적 관계, 타인동성과 타인이성 관계를 중심으로 갈등 플롯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별 갈등 요인에서 나타난 사랑과 재물이라는 갈등 요인과 연결해보면, 남녀주인공의 사랑은 각각의 적대자인 타인이성이나 타인동성과의 관계를 통해, 재물은 가족 내 관계를 통해 갈등을 만들어나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남녀주인공을 중심으로 발생한 갈등은 가족 구성원이나 애정 관계의 대상자와의 관계 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이 시기 드라마가 직장이나 가족의 범위에서 갈등을 선택하고 풀어가는 특성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7. 갈등의 주제별 요인의 수직적 갈등 관계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합계
사회 (직장)	4 (100%)	0 (0.0%)	10 (62.5%)	10 (62.5%)	1 (14.3%)	2 (20%)	27 (44.3%)
가족	0 (0.0%)	8 (100%)	5 (31.3%)	6 (37.5%)	6 (85.7%)	8 (80%)	33 (54.1%)
사제	0 (0.0%)	0 (0.0%)	1 (6.3%)	0 (0.0%)	0 (0.0%)	0 (0.0%)	1 (1.6%)
합계	4	8	16	16	7	10	61

[표 7]은 수직적 관계로 갈등 이슈가 연결된 사례를 정리한 내용이다. 먼저, 수평적 관계에 비해 수직적 관계의 발생 빈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과 가족을 중심으로 스토리를 전개하면서도 직장 내 상하 관계보다는 가족 내 권력 관계를 더욱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주말드라마나 일일드라마와 대조되는 미니시리즈 포맷에서도 가족 관계가 중심을 이루면서, 그것을 서열이나 권력 관계로 풀어나가고 있다는 것은 이 시기의 드라마가 사회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함의라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가족 내 권력 관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발견할 수 있다.

3. 데우스 엑스 마키나와 긍정적 갈등 해결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방영된 미니시리즈 중에서 시청률 상위 5위 이내에 진입한 작품들의 갈등 해결 방식은 남녀주인공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해피엔딩으로 결론지어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긍정적 해결 방식은 더욱 강화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8]은 드라마가 다루는 전체 갈등의 빈도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남녀주인공을 둘러싼 적대자와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남녀주인공의 갈등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집중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표 8. 2000년~2005년 성공한 미니시리즈의 갈등 해결 방법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합계
긍정적	7 (43.8%)	12 (57.1%)	18 (85.7%)	14 (66.7%)	7 (77.8%)	5 (83.3%)	63 (67.0%)
부정적	9 (56.2%)	9 (42.9%)	3 (14.3%)	7 (33.3%)	2 (22.2%)	1 (16.7%)	31 (33.0%)
합계	16	21	21	21	9	6	94

대표적인 새드엔딩의 드라마 〈가을 동화〉, 여자주인공이 아프리카로 이주하는 〈명랑소녀 성공기〉, 여자주인공의 죽음을 묘사한 〈천국의 계단〉, 여자주인공의 죽음을 따라 남자주인공도 사망하는 드라마 〈완전한 사랑〉 등은 남녀주인공 자체가 부정적인 결말로 마무리되지만, 그 외 대부분의 미니리시즈들은 남녀주인공의 적대자가 부정적인 결말의 대상자이다. 핵심적인 적대자의 불행을 통해 관련자들의 행복한 결말을 맺도록 하는 드라마의 특징이 이 시기 미니시리즈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갈등 해결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표 9]의 내용과 같다.

표 9. 긍정적/부정적 갈등 해결의 구체적 방식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긍정적 방식	용서, 이해, 연애, 결혼	용서, 이해, 성장, 연애, 결혼, 자기극복	용서, 이해 자기극복 연애, 결혼	용서, 이해, 자기극복 연애, 결혼	용서, 이해, 연애, 결혼 자기극복	연애, 결혼, 용서
부정적 방식	자살, 죽음, 이별	살해, 죽음 이별, 이주	죽음, 살해, 자살시도 이별, 이주	죽음, 자살, 살해, 이별, 이주	자살, 살해	죽음
기타 방식	기억상실 강등	체포, 사임, 회사해체	체포, 해체	체포, 실성, 해체	-	-

긍정적 갈등 해결의 방식은 인간적인 화해의 방법이나 연애, 결혼, 재혼과 같이 사랑의 결실을 맺는 방법, 그리고 성취욕이나 기대감을 이루어내는 자기 극복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녀주인공의 기대와 도전이 실현되는

방식이고, 적대자에 대해 인간적인 용서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는 결말을 의미한다. 하지만 부정적 방식에는 자살이나 죽음과 같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적대자와의 갈등 해결 방식이 중심을 이루면서, 해외 이주나 체포와 같은 공간적인 분리 방식이 포함되고 있다. 특히 드라마의 결말 부분에 적대자가 죽음에 이르면서 갈등이 해결되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이 시기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갈등 해결 방식은 사회의 변화나 콘텐츠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

V. 결론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이루어지던 2000년부터 2005년간 방영된 미니시리즈 중에 시청률 상위 5위 이내에 진입한 작품들의 갈등구조는 전형적인 사랑과 성공 이슈를 중심으로 빈부 갈등과 신분 상승 욕구를 자극하고 있으며, 직장은 물론 가정을 서열과 권력 관계로 묘사하면서 갈등을 해결해나가고 있다. 사회적으로 취업이나 결혼, 흔들리는 가장으로 인한 가정의 위기가 이슈로 부각되었던 것과는 달리 우리 드라마는 아직 청춘의 애정을 소재로 하고 있다. 갈등의 주제별 요인에서 연인과 타인동성, 타인이성의 비율이 높은 것은 남녀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애정의 삼각관계가 핵심 갈등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갈등의 수직적 관계에서 가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도 자녀의 애정 문제가 가족 내 갈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드라마의 결말이 부정적 방식보다는 긍정적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면서 인간적인 화해를 강조하는 것과 함께 악인을 처벌하는 방식으로 질병이나 사고를 통한 죽음 또는 해외 이주나 체포와 같은 공간적 분리 방식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남녀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핵심 갈등을 긴장감 높게 전개하다가 적대자가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문제가 기계적으로 간편하게 해결되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 방식이 이 시기에도 자주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가 경제적인 전환기를 맞아 급격하게 변화하는 과정에 드라마는 유행이나 선호도에 맞는 직업인을 주인공으로 선정하면서도 종국적으로는 애정 문제와 관련된 신분 상승의 욕구에 집중하면서 시대에 맞는 가치관의 변화보다는 감정에 호소하는 스토리를 시청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는 이 시기의 드라마가 사회를 선도하거나 반영하기보다는 전통적인 멜로 드라마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2000년부터 6년간 방영된 미니시리즈를 분석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드라마가 갈등을 다루는 구조 변화에 대한 추세를 분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젠더 문제나 성역할, 빈부의 문제 등 특정 주제를 드라마가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보다는 통시적인 시각에서 드라마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갈등 분석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앞서 설명하였듯이, 내면적 갈등 설정 요인에서 가치관 요인이 점차 줄어드는 반면 감정 요인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상황적 갈등 주제별 요인에서는 사랑을 핵심 갈등으로 다루는 드라마가 점차로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추세는 남녀주인공과 갈등 관계를 형성하는 수직적 관계에서 가족 내의 서열과 권력 관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향후 동일한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최근에까지 이르는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를 분석함으로써 드라마가 사회를 반영하는 방식은 물론 시청자에게 선호도가 높은 갈등구조가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참 고 문 헌

[1] J. Fisk and J. Hartley, *Reading Television: 25th Anniversary Edition*, Routledge, 이익성, 이은호 역, *TV읽기*, 현대미학사, 1994.

[2] 노동렬, "인기 TV 드라마에서 질병을 활용하는 방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7호, pp.351-365, 2017.

[3] 정영희,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의 동시대 지형과 역사성," 한국언론학보, 제53권, 제1호, pp.84-108, 2009.

[4] 박은하, "텔레비전 멜로드라마의 이야기구조와 남녀주인공의 특성: 방송3사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2호, pp.48-59, 2014.

[5] 최양수, "문화로서의 드라마, 산업으로서의 드라마," 한

국프로듀서연합회 창립 12주년 기념토론회 발제문, 1999.
[6] 노동렬, *방송산업의 비극*, 서울:부키, 2015.
[7] C. G. Heilbrun, *Human sex-role behaviour*, New York: Pergamon Press, 1981.
[8] 이효성, 홍원식, "드라마 속 여성등장인물의 인구 사회학적 변인에 대한 고찰: 2000년대 초반과 2010년대 비교," 커뮤니케이션학연구, 제22권, 제3호, pp.75-96, 2014.
[9] 노동렬, "TV 드라마 주인공 직업의 변화가 스토리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12호, pp.226-235, 2017.
[10] 노동렬, "인기 TV 드라마에서 질병을 활용하는 방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8호, pp.351-365, 2017.
[11] R. Mckee, S*tory: Style, Structure, Substance, and the Principles of Screenwriting*, NY: Harper Collins, 고영범, 이승민 역, *스토리: 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 민음인, 2011.
[12] 나은영, *미디어심리학*, 서울:한나래, 2010.
[13] B. Goss and D. O'Hair, *Communicating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NY: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8.
[14] R. B. Tobias, *20 Masre Plots And How to build them*, 김석만 역,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20가지 플롯*, 서울:풀빛, 2007.
[15] R. L. Katz, *Empathy: Its Nature and Uses,* Glencoe, IL: The Free Press, 1963.
[16] M. H. Davis, J. G. Hull, R. D. Young, and G. G. Warren, "Emotional re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2, pp.126-133, 1987.
[17] Alex Epstein, *Crafty Screenwriting: Writing Movies That Get Made*, 윤철희 역, *할리우드 기획 담당이 전하는 성공의 시나리오 법칙*, 스크린MB, 2005.
[18] Syd Field, *Screenplay: The Foundation of Screenwriting*, 유지나 역, *시나리오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4.
[19] 김희애, *텔레비전 드라마의 갈등구조에 대한 연구: 미니시리즈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저 자 소 개

노 동 렬(Dong-Ryul Roh) 정회원

- 1986년 2월 :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문학사)
- 1988년 2월 :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문학석사)
- 2014년 8월 :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문학박사)
- 2006년 9월 ~ 현재 :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관심분야〉 : 방송산업, 방송콘텐츠